행복은 나를 버릴 때 기쁨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신을 알게 될 때에 기쁨이 차고 넘쳐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며 기쁨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복'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병이 들게 되어 있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가치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남녀의 만남에 두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살펴볼 때, 남녀 간의 사랑에 행복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은 찰나적인 행복을 줄 뿐 아픈 상처와 괴로움만 남기고 사라져 갑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욕망의 이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으로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로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하여 물질을 쌓아 놓은 곳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어보지만 그곳에는 역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을 쥐면 행복을 누릴까 하여 권력을 잡아보았지만 역시 거기에도 행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는 왜 이러한 실패를 거듭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가치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잘못된 인생철학을 가지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철학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온전한 철학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철학을 내세웠더라면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온전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 있었습니다.

철학이란 생의 목적과 이념을 어떻게 설정하였는가를 말하는데 오늘날까지 생의 목적과 이념을 올바르게 설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고로 온전한 철학이 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왜 생의 목적과 이념이 잘못 설정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모든 인생들의 주체 영이 바로 마귀 영이었기 때문이며 인생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영은 마귀의 생각밖에 못하므로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주는 욕망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욕망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으므로 한계가 있는 철학을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요 행복의 영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주체 영이 마귀 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바로 마귀입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피가 썩고, 늙음과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의식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한계가 그어져 있는 좁다란 철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사람의 주체 영은 하나님의 영이었으며 그때는 인간(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불행은 찾아보려야 찾을 수 없고 기쁨과 희열과 영생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인 것은 사람들 속에 그 증거가 남아 있으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이 양심이 주체 영이었고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생명의 영이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입니다. 지금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되는 양심의 힘으로 생명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오늘날 지식인이라 자처하는 과학자들에게 '사람이 왜 사느냐'? 고 물으면 그들은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합니다. 생명의 근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다만 살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학문 또한 학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진리추구가 그 목적이며 진리는 변하지 않는 생명 속에 존재하는 것인데 사람이 왜 사는지, 풀과 나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왜 죽는지와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을 모르니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참 학문이 나와야 사람이 왜 살며, 왜 죽으며, 사람이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에 대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산다' '인간의 본향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여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주체 영이었던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므로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마귀의 영과 싸워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목적이요 이념입니다.

우리의 조상되시는 하나님은 그 자식이 갖은 고생 끝에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영원무궁토록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무궁토록 살려면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무궁토록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괴롬이 있다든지 마음에 그늘이 진다면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려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잠시만 기쁘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다면 영생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해야 하는 것이지 그 기쁨이 식어버린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고로 기쁨이 바로 영생이요, 영생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기쁨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말할 수 없이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것이 양심의 기쁨이며 양심의 기쁨은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기쁨은 잠시 후에는 식어버립니다. '나'라는 영이 욕심을 충족시킬 때에는 잠시 잠깐의 쾌락이 있는지는 몰라도 다음 순간 더 큰 욕망 앞에 그 기쁨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 영이 작용할 때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는 말할 수 없이 우울하고 몸이 무겁고 말할 수 없이 마음에 괴로움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라는 것을 아낌없이 던져버리고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움직여 보십시오. '나'를 던져 버릴 때에 비로소 기쁨의 신인 하나님이 내가 되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신이 점령하시는 고로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니 이 사람을 봐도 즐겁고, 저 사람을 봐도 즐겁고, 저 사람을 봐도 천사같고, 이 사람을 봐도 꽃과 같이 아름답고…

그런고로 내 마음이 천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상대방도 천사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마귀의 마음 즉 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마귀 새끼는 누구를 봐도 도둑놈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봐도 도둑놈, 저 사람을 봐도 도둑놈처럼 보이는 것은 자기가 도둑놈이고 자기가 바로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마귀인 고로 누구든지 마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누구를 보든지 귀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 마디를 해도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귀한 존재이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희성님의 발자취

참혹한 전쟁 후 인생관이 바뀌어 신학대학에 입학하다

학업을 위해 다시 부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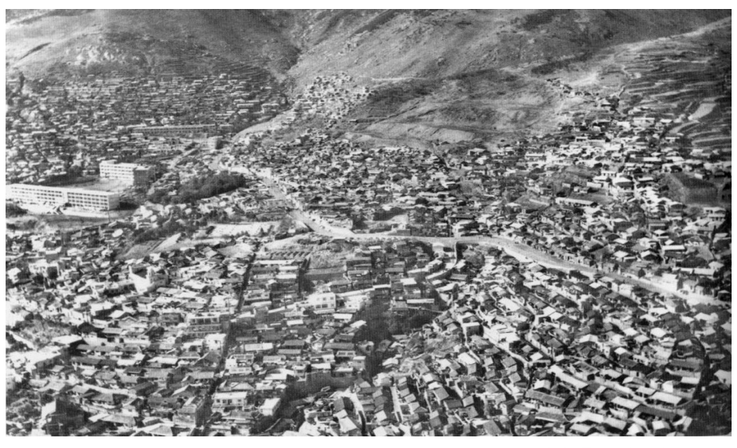
고향에 돌아와 보니 이웃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눈동자가 완전히 바뀌었구나."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음의 위협과 고비, 절체절명의 순간을 수없이 넘고 보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단련되어 보통 사람과는 다른 강한 사람이 되었던 까닭이다.

그 옛날 하늘의 사람 전도관의 박태선 영모님께서도 "6.25전쟁은 이긴자를 배출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다. 그때 당시에는 영모님 자신이 직접 당하고 고생하신 내력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이긴자가 되어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포로 아닌 포로 생활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진 고생을 3년 동안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고향집으로 돌아왔으나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다. 며칠 쉬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포로 생활 때문에 중단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서울로 가서 학교를 찾았다. 그러나 당시에 다니던 학교가 전쟁으로 인하여 부산으로 옮겨 가버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산으로 내려갈 것을 부모님께 고하고 서둘러서 채비를 갖춰 내려갔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서울대 법대 2학년 때 이미 육법전서를 다 통달해 버릴 정도로 법이라면 해박한 지식을 갖췄었다. 벌써부터 친구들이 사법고시에 응시하면 합격하고도 남는 실력을 가지고도 왜 응시 안 하느냐고 할 정도의 실력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인명이 참혹하게 죽어 나간 전쟁을 직접 겪고 나니 삶에 대한 목적, 인생관, 가치관이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인간이 왜 사는지, 신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러한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삶과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이러한 인간 심연에 도사리고 있는 본질적 의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였다.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 좋다는 서울법대를 복학하지 않고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에 들어갈 결심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에는 전쟁 중이라 모든 경제의 중심과 배움의 장소도 부산에 집중되어 있었다.

부산이란 곳은 고향 집과도 멀리 떨어져 있고, 뒷바라지는 꿈도 꿀 수 없어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대학을 다녔다. 전쟁 와중이라 객지에서 학업을 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다. 힘든 생활 속에서 단연 학교생활은 삶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을 찾아 그로부터 벗어나고자한 생각으로 이러저러한 것이 다 의문투성이었다. 자연히 좀더 분명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수강시간이면 어김없이 교수님에게 온갖 질문을 다 던졌다. 성경공부를 하면서도 도저히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예를 들면, "선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데 세상은 왜 이토록 불행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가?"하는 질문으로 해서 다양한 질문을 과감히 던졌다. 이와 같은 질문이 던져지면 학우들에게는 단연 인기가 많았었다. 하지만 교수님으로부터는 골치 아픈 학생으로 통했다. 교수님 자신들도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니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처럼 신학대학 생활은 삶의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슴없는 질문을 던지는 철학자적 기질로 살았다.



6.25전쟁 때 부산의 모습

부산 부두에서 감독관으로

학교 수강이 끝나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부산 부두의 미군 통역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는 전쟁 중이라 미국에서 많은 군수물자와 구호물자가 들어왔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 보급관들과 관계자들이 이것을 빼돌려 사사로이 착복하였다. 어렵고 굶주리던 때라 이곳은 부정 비리에 온상이 되었다. 그래서 수시로 관계자들이 바뀌는 형편이었다.

그때 이 사람은 유창한 영어 솜씨로 미군에게 인정을 받은 고로 모든 물자 반출 시 이 사람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 직책으로 빠르게 승격되었다. 이 사람이 통역관 겸 감독관으로 일하면서부터는 부정 사건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어느 날은 집에 들어와서 보니 정체불명의 웬 가방이 방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방에 들어가 가방을 열어보니 엄청난 돈뭉치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대략 5억 환이라는 거금이 방안에 놓여 있었다. 5억 환이라면 당시 부산에서 몇째 안가는 거부가 될 수 있는 거금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평소 물욕이 손톱만치도 없는 사람인지라 그런 것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분명 의문의 이 돈은 무슨 꿍꿍이가 담겨있는 것이라 여겼다. 다음날 돈을 싸가지고 출근하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한 트럭 운전수가 손목시계를 가뜩 싣는 컨테이너를 싣고 나가면서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것이었다. 옳거니 즉시 눈치 채고 이 사람은 차를 세워 창문으로 돈을 던져주고서 출차를 거부하며 물건을 원위치에 돌려놓게 하였다. 이런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미군들 귀에 들어갔다. 부두를 지키고 있는 미군들의 입에서는 "남한에도 이렇게 훌륭한 청년도 있었구나!" 하면서 대단히 놀라워하며 감동하였던 일도 있었다.

한편으론 학업을 하고, 다른 한편으론 생계를 위해 부산 항구서 감독관으로 일하고 있는 어느날, 갑자기 입대 영장이 발부되어 날아왔다. 육군으로 입대를 명받게 된 것이다.*